



천주교 의정부교구(<http://ucatholic.or.kr>) · 발행인 이기현 · 편집 홍보국 · 제811호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의정부동)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850-1433-5(홍보국) · 팩스 850-1575 · 이메일 jubo@uca.or.kr

8지구 - 야당맑은연못 성당



설립 2010년 9월 28일 전화 사무실 031-947-1784 주소 경기도 파주시 동서대로 696-27

제1독서 지혜 18,6-9

화답송 시편 33(32),1과 12.18-19.20과 22(㉠ 12- 참조)

◎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올곧은 이에게는 찬양이 어울린다. 행복하여라,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민족, 그분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
-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네. ◎
- 주님은 우리 도움, 우리 방패.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당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

제2독서 히브 11,1-2.8-19 또는 11,1-2.8-12

복음 환호송 마태 24,42.44 참조

◎ **알렐루야.**

-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

복음 루카 12,32-48 또는 12,35-40

영성체송 시편 147(146-147),12.14 참조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너희들 작은 양 떼야.”(루카 12,32)



강명호 마르코 신부
탄현동 부주임

참행복을 탐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신앙인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남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그 의욕을 잘 간직할 수 있는가' 입니다.

한창 '탁구'를 열심히 배운 일이 있었습니다. 레슨도 받고 어깨너머로 잘하신다는 분들의 경기도 보았습니다. 굳이 나누지는 않지만, 탁구는 '공격형'과 '수비형'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격형'보다는 '수비형'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공격'은 좋은 공격 한 번에 점수를 얻지만, '수비'는 실패 없이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다른 운동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참행복을 향한 의욕을 잘 간직하는 것은 '수비'와 비슷합니다.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깨어서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루카 12,36.38 참조). 그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느 유혹이 오더라도 버티고 어떤 졸음이 오더라도 깨어있어야 합니다.

제가 바라본 저의 모습은 유혹이라는 바람이 불면 팔랑팔랑 흔들리는 갈대와 같았습니다. 끊임없이 넘어지고 좌절하는, 돌고 도는 '다람쥐의 쳇바퀴'였습니다.

그때 도움을 준 기도가 있었습니다. 신학교 시절 늘 점심시간마다 있었던 '양심성찰'이었습니다.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주님 앞에 앉아, 오늘 나의 일을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떠오르는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 맡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과열된 자기비판을 식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넘어지지 않기보다는 잘 일어서라고 주님께 격려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작은 양 떼야.” 주님께서서는 생각보다 우리에게 많은 기대를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작음을 아시기에,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에 그대로 바라보아 주십니다.

저희의 찬미가 보탬이 되지 않을 정도로 보잘 것 없지만,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공통 감사송4). 오늘도 주님께 의탁하여 깨어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



백로와 고속도로



여름을 나기 위해 이 땅을 다시 찾아온 백로가
 처음 오는 친구를 데리고 고속도로가 보이는 소나무 위에 앉았다.
 줄 지어서 마구 달리는 자동차들.
 처음 온 백로가 물었다.
 “저 길은 뭐야?” 친구 백로가 대답했다.
 “고속도로라고 해. 빨리 달리기 위해 만들었대.”

“왜 빨리 달려야 하지? 멀리 내다보려고?”
 “아니야. 코앞의 일이 급해서래.”
 친구 백로한테 새로 온 백로가 또 물었다.
 “저렇게 급히 달리다가는 부딪치기도 할 텐데?”
 “그렇지. 죽기도 해.”

“저 길을 달리는 인간들의 일이 생명을 걸 만치 바쁜 일들이야?”
 “아니야, 놀러 다니는 사람도 있어.”
 “놀러 다니는 사람은 천천히 가야지 가는 동안에 보는 것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나 저 길에서는 죽어라고 달려야 된대.”
 “바쁘지 않아도?”
 “응. 앞사람이 달리고, 뒷사람이 쫓아오니까 달려야 한대.”

“그러다가 죽기도 한단 말이야?”
 “그렇다니끼!”
 “알다가도 모를 게 인간들이야.”

두 마리의 백로는 험험 하늘 높이 날아갔다.
 천·천·히. 🌀



아무것도 잃거나 얻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다소 황당한 동영상을 봤다. 8살 딸아이가 엄마에게 ‘날 낳고 잃은 건 뭐야?’ 라고 물었더니 엄마가 ‘널 낳고 잃은 건 젊음.’이라고 대답한 뒤 ‘그래도 예쁜 딸을 얻었잖아.’ 덧붙이는 내용이었다. 고작 8살 아이에게 날 낳고 뭘 잃었냐는 질문을 하게 한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많은 걸 잃은 대신 아이를 얻었다는 식의 메시지도 불편했다. 애초에 이런 식의 등가교환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 서른 살이 되던 해에 첫아이를 낳았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서른 살의 인간이 할 수 있는 많은 일을 못하게 된 동시에, 부모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하게 되었다. 할 수 없게 된 일들은 대체로 재밌는 일인 반면, 부모로서 해야 할 일들은 고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억울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억울하다고 해서 ‘그래도 아이를 얻었으니깐,’ 하면서 위안할 수는 없다. 그러면 일상이 불만족스러울 때 손쉽게 아이 탓을 하게 될 지도 모른다.

셋째를 낳고나서는 이번이 마지막 출산이니 정말 몸조리 잘해야지 생각했다. 그럼에도 세 번째 출산은 확실히 몸에 부담을 주는 것인지, 여기저기가 뼈격거렸다. 거기에 산후우울감이 겹쳐서 이제 예전의 건강을 완전히 되찾지는 못하리라는 불안에 휘청거렸다. 꼬물거리는 신생아를 옆에 두고 두려움과 불안에 사무치던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건강이 원래 내 것이었나? 내 것이 아닌데 잃었다고 할 수 있나? 나는 젊음과 건강을 포기하고 아이를 얻은 것이 아니었다. 젊음이란 애가 있건 없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고 건강은 영원히 내 손에 움켜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이 역시 내 몸에서 나왔지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나는 잃거나 얻은 것 없이 단지 변화된 삶을 맞이했을 뿐이다.

아이가 갓 태어나서 약 세 돌이 될 때까지는 보호자의 엄청난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먹이고 씻기는 것은 물론, 사물의 이름도 하나하나 알려줘야 하고, 위험한 행동을 해선 안 된다는 것도 계속 주입시켜야 한다. 내 몸 하나 겨우 건사해오다가 2인분, 3인분의 삶을 살다보니 한때는 아이가 내게 종속된 존재인 것으로 착각하기도 했다. 이렇게 열심히 거뒀 먹이고 있으니 애는 누가 뭐래도 내 것이라는 착각. 그런데 요즘 다섯 살 첫째를 보고 있으면 벌써 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고 있는 걸 느낀다. 아이는 아마도 처음부터 강인하고 독립적인 존재였을 것이다. 잠시 부모의 손을 빌려 세상에 익숙해지는 것일 뿐,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신학자 로마노 가르디니가 말하길, 신은 모든 인간이 탄생할 때 오직 그에게만 맞는 언어로 말씀하신다고 한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 하느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진다. 언젠가 아이들이 자라서 엄마 아빠 품을 벗어나는 때가 오면, 슬쩍 그 비밀을 들려주기를 기대해본다. 🍪

정신후 블라시아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작가, 정발산 성당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고 본당 청년과 결혼하여 세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무속 신앙과 민간 신앙의 결합(종교혼합주의)

5.1. 한국에서의 유사종교들은 무속과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다. '신령한 세계와 접촉한다.'는 '특정 인물(교주)'과 만나서 그를 통해 '치유나 은사, 축복을 받는다.'고 말하는 데서 잘 드러난다. 이 경우, 교주가 영매나 무당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들은 교주의 입신 체험(성령 체험, '피가름', 두루마리 사건과 같은 환시적 체험), 망아(忘我)나 황홀경에의 도달, 현세적 복락의 약속, 기성종교 교리의 수용과 변형, 범신론적 세계관, 치유-방언-예언 등을 그가 신과 소통하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성경을 펼쳐 들고 이야기하지만, 마치 무당이나 점쟁이가 불상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무속에다 그리스도교를 뒤섞은 것일 뿐이다(이런 것을 종교혼합주의 syncretism라고 한다). 예수님을 말하고 성경을 펼친다고 다 그리스도교가 아니다. 성령의 은사는 나자렛 예수님에 대한 고백으로 이끌지, 우리 시대의 한 사람(!)을 신격화하도록 이끌지 않는다.

5.2. 한국인들이 민간-무속적인 것에 익숙하다는 점이 이러한 이들이 폭넓게 활동할 수 있는 바탕이 되고 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미신적 행위들'(사주, 관상, 손금, 궁합, 별자리, 이사나 결혼에 좋은 날(손 없는 날), 점, 철학관, 타로, 운세, 토정비결, 동전을 던지며 소원을 비는 행동, 해나 달을 보고 소원을 비는 것 등)이나 '미신적 금기 사항들'(다리를 떨면 복 나간다,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지 마라, 밤에 휘파람 불지 마라, 문지방을 밟지 마라, 밥상 모서리에 앉지 마라, 밥그릇에 손가락을 꽃지 마라), '일상의 언어 습관'(전생에 무슨 죄가 있다고, 귀신은 다 뭐하나, 다시 태어나면 ~하리라), 또는 유행이라고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좋다며 '남 따라 하는 것들'(기

가 나온다는 돌이나 재료, 인도식 요가와 명상, 심신을 건강하게 해준다는 특별한 음악, 우주의 기운이나 자연의 기 등 뉴에이지에 속하는 것들)에 우리가 너무 쉽게 끌리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5.3. 건강하든 병들었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뜻에 순명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점쟁이나 무당이 말하듯이 정해진 운명에 따라 사는 이들이 아니다. 우리는 주님께 대한 고백을 통해 하늘나라의 시민이 된 자들, 하느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자들로, 하느님의 계획 안에 사는 이들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운명의 길'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찾아 그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

5.4. 다른 한편, 우리에게 뿌리 깊이 박혀 있는 미신과 불교의 영향에서 형성된 문화와 생활습관, 일상 언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무심하게 따라갈 것이 아니라, 신앙인의 눈으로, 신앙인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평가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부합하거나 신앙을 전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수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어야겠지만, 반대로 우리의 신앙에 저해되거나 반대되는 것이 있다면, 수정하고 변화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도전해야 한다. 언어도, 삶의 형태도, 문화도 다 복음화의 대상이다. ☉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미 사

2019.08.14. 16시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종로)



※정정합니다.

제7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미사의

장소는 '종로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천주교 전국행동 >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대구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마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작은형제회 정의평화창조보전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연합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한국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하리라

음악 이야기

최대한 세례자 요한 신부

대신학교

예전에 읽었지만 그 진가를 미처 몰랐던 책들이 종종 있습니다. 긴 시간이 지나 다시 읽어 보고서야 마치 처음 읽은 것처럼 비로소 그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이번 여름에 읽은 레이 브레드버리의 <화씨 451>(박상준 옮김, 황금가지)이 그런 책이었습니다. 20세기 SF 소설과 환상소설을 대표하는 작가인 브레드버리(1920~2012)는 탁월한 상상력 뿐 아니라 아름답고 환상적이면서도 독창적인 문체로 시간이 갈수록 장르문학의 경계를 넘어 점점 더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화성연대기> 연작과 같은 SF 고전을 포함해 다양한 장르로 분류되는 수많은 주옥같은 단편들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명성을 세계적으로 만든 것은 장편 <화씨 451>(1951)이라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명감독 프랑수와 프뤼포는 이 작품을 1966년에 영화화했는데 오스트리아의 명배우 오스카 베르너가 주인공인 가이 몬테그를 맡았습니다.

이 소설은 이른바 “디스토피아(Dystopia)”를 소재로 하는 문학에 속합니다. 디스토피아 문학은 미래에 대한 암울한 세계상을 통해, 지금 이 시대의 문화와 사고방식, 특히 문명에 잠재된 전체주의와 자기 파괴적 위험을 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고전적인 디스토피아 소설로는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와 조지 오웰의 <1984>가 있겠지요. 우리 시대의 새로운 고전이라 할 코빈 맥카시의 <로드>도 떠오릅니다. <화씨 451> 역시 이러한 디스토피아 문학의 고전에 속하는 뛰어난 작품입니다.

날카로운 통찰과 함께 인간에 대한 깊은 공감이 있고, 간결한 문체와 빠른 진행 속에서도 간간히 아름답고 시적인 장면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멋진 신세계>, <1984>, <로드>와 마찬가지로 <화씨 451> 역시 긴 시간적 간격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우리를 향한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시대의 염려가 이제 비로소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풍요와 번영이

라는 소비사회의 외피 속에서 지성적 성찰력과 따뜻한 마음의 공감과 연대가 각 개인과 사회 안에서 심하게 손상되고 있다는 준엄한 경고를 만나게 됩니다. 기술적, 제도적인 발전은 디스토피아를 극복하는 도구일 수는 있지만, 그 원천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디스토피아 소설의 원류라고 말할 수도 있을 대작 <악령>을 쓴 러시아의 대작가 도스토예프스키는 그의 명작 <백치>에서 거듭해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말을 전합니다.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이 말을 우리 시대는 곰곰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화씨 451>를 읽는 즈음에 영국의 실험적인 그룹 ‘아기 예수의 혁명적 군대 Revolutionary Army of the Infant Jesus’의 음악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이십여 년 만에 새로 내놓은 음반제목이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Beauty will save the World>(2015)입니다. 앨범 표지 인물은 다름아닌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신비가인 시몬 베유(Simon Weil, 1909~1943)입니다. 영화 감독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에게도 깊은 영향을 받은 이들의 음악에는 인류의 정신적 위기에 대해 영혼과 정신과 삶을 다해서 응답한 위대한 인물들에 대한 존경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곡인 <날의 끝이 오기 전에 Before the Ending of the Day>는 동방 정교회의 음악이 차용되기도 하는데, 도스토예프스키와 타르코프스키의 작품에 담긴 영성에 동감하는 음악적 고백으로 느껴집니다. 자신들이 직접 올린 음악 영상에 타르코프스키의 영화 <안드레이 루블레프>의 장면을 선택한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

YOUTUBE로 보기



아기 예수의 혁명적 군대
(Revolutionary Army of the Infant Jesus)
“날의 끝이 오기 전에
Before the Ending of the Day”



교구장 동정



**교구
소식**

교구 홍보국 영상아카데미 19기 모집

대상 본당 홍보/기획분과 담당 및 일반 신자 장소 교구청 지하 1층 미디어 교육실
인원 12명 / 교육비: 5만원 일시 8/17~10/12 매주(토) 09:30~12:00 (추석연휴 제외)
문의 홍보국 031-850-1435 내용 가톨릭과 미디어, 영상 편집(프로그램:모바비)

생태영성학교

현재 생태 위기를 바라보며, 생태적 회개와 바른 생활로 이끄는 이론 6회, 탐방 2회로 구성된 교육
이론 8/26(월)~10/7(월) 19:30 장소 신앙교육원
탐방 9/7(토), 10/12(토) 오전 10시 비용 6만 원(강의별수강가능: 이론 1만 원, 탐방 2만 원)
마감 8/23(금) 문의 환경농촌사목위원회 031-850-1491~2

나무그늘 사진 공모 알림

소소한 나의 일상을 보내 주세요! 채택된 작품은 <나무그늘>에 실어 드리고, 소정의 선물을 보내 드립니다.
순례자의 얼굴 / 내가 바라본 평화 / 나의 이웃은? 문의 031-850-1447, 이메일 samok@uca.or.kr
※ 보내실 때 본당, 이름(세례명), 주소, 연락처를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의정부교구장배 가족오리엔티어링 대회

대상 전신자(가족, 본당 단체, 주일학교, 기관 등) 일시 9/22(주일) 10시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내용 오리엔티어링 경기, 체험부스, 경품추첨 등 문의 031-840-0742 ※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청년전례학교(보수과정) 안내

내용 전례 활용에 필요한 스피치/성가/복사 교육 일시 9/7(토) 10시~18시
장소 신앙교육원 대상 이전(2012~2019년) 청년전례학교 기본과정을 수료한 청년
기간 7/12(금)~8/24(토) 비용 1인 2만 원
문의 청소년사목국 청년부 031-850-1460, <https://cafe.naver.com/youthujb> 공문 참조

임진강을 따라 걷는 2019 DMZ 평화의 길

기간 [3차] 10/3(목)~6(주일) 장소 파주-연천 구간 /비용 15만 원
대상 초6학년 이상 누구나 (선착순 마감) 접수 031-941-2766, www.pu2046.kr
주최 천주교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주관 천주교의정부교구 민족화해센터

신앙의 눈으로 고전읽기

강사 최대환 신부 일정 9/6(금) 괴테의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읽기
시간 20시~21:30 10/11(금) 괴테의 '파우스트' 읽기
장소 신앙교육원(의정부교구청 내) 11/1(금) '괴테와의 대화' 읽기
문의 선교사목국 031-850-1446~7 회비 1회당 1만 원 /3회 전체신청 2만 원(당일 현장 접수)



미사 · 피정 ▶▶

교구 성령새신 봉사회 철야기도회(미사와 함께)

일시: 매주(금) 21시~01:30 마두동 성당(8/16)

주제: 찬양과 치유 기도회

문의: 교구 성령기도회 010-8729-0025

매듭을 푸는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피정

일시,장소: 매주(화) 파티마 평화의 성당

문의: 031-952-6324

매듭을 푸는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와 가톨릭 교회 교리강의(10시~14시 미사, 점심제공)

예수회 후원회 월례특강

주제/강사: 상처치유를 위한 두 기동 - 관상과 성찰 /최준열 신부

일시: 8/19(월) 13:30~16:30

장소: 마두동성당 4층 소성전(교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54) /무료, 미사봉헌

문의: 010-5054-4470

9차 순교자 학교 (주제: 순교자와 어머니)

일정: 9/7(토)~8(주일), 시작14시, 마침16시

장소: 정하상교육회관 /8만 원

문의: 044-863-5690~2, 010-8848-5690

신·구약 성경 통독피정 (8박9일)

일시: 8/23(금)~31(토) /48만 원

10/18(금)~26(토) /48만 원

문의: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제주명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모든일정은 양북항공권 포함해서 접수가능)

일반: 8/23~25, 9/7~9, 9/16~18

제주전체성지순례(추자도포함): 9/1~4,

9/21~24, 9/30~10/3, 10/6~9

접수: 02-773-1463 /064-756-6009

[성심교육관] 개원 38주년 기념 무료 치유대피정

일시: 8/16(일)(금) 22시~18(일) 15시

장소: 성심교육관 031)262-7600

말씀과 함께 하는 소비녀 떼제 기도

8/17(토) 14시 /문의: 010-5906-8099

예수회 후원회 금요침묵피정

주제/강사: 상징의 이해와 기도 /서석철 신부
일시/장소: 8/16(금) 10시~13시 /예수회센터
문의: 02-3276-7777 /무료, 미사봉헌



교육 · 모집 ▶▶

한마음수련원 직원모집

근무직책: 팀장

담당업무: 사무, 행정, 회계, 예/계약, 고객응대 등 /서류마감: 8/23(금)까지

본원 홈페이지 hanmaum84.com 확인

의정부성모병원 호스피스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호스피스에 관심이 있는 봉사자

장소: 의정부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

문의: 031-820-7003

일산여정성서교육관 2019년 2학기 성경공부

8/26(월) 시서와 지혜서, 8/29(목) 바오로

서간, 8/30(금) 마태오복음서, 10시~12시

문의: 010-4338-4007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 모집

근무: 주 40시간 /기숙사 가능

문의: 032-930-8500~3

인천교구 지혜의 샘(북방선교기도공동체) 교육 일정

장소: 부천시 송내동 366-5 지혜의 샘

월,수: 성경 맥잡고 둘러보기

화: 성경 통독 길잡이

목,주일: 말씀치유 낮 기도회

금: 성시간, 말씀치유 철야기도회 19시~04:30

매일 미사와 묵주기도 100단이 있습니다.

문의: 032-343-1871 www.jwisdom.or.kr

호스피스 완화의료 심화교육과정 모집

장소: 서울성모병원

대상: 호스피스에 관심있는 분

기간: 10/19~12/21 매주 토요일

교육비: 70만 원

홈페이지 참조 hospice.catholic.ac.kr

모현센터의원 간호사모집

조건: 호스피스병동 3교대(기숙사 제공)

문의: 031-536-8998(경기 포천시)

수사신부님들과 함께하는 노인요양원 입소자모집

대상: 장기요양1~5등급(시설급여)을 받으신 분
운영: 마리아의 아들 수도회

문의: 033-458-9422(문태노인요양원)

가톨릭교리신학원 2학기 특별강좌 수강생 모집

<예수님을 그린 화가들의 이야기>

9/3~9/24 매주(화) 14시~15:40, 4강좌

수강료: 4만 원 사전접수(8/19~29)

강사: 김준성 요셉(10명 미만 시 폐강)

<아리스토텔레스와 함께 걷는 인생길>

9/6~11/29 매주(금) 14시~15:40, 10강좌

수강료: 회당 1만 원 현장접수

강사: 최대한 신부(대신학교)

교무과 02-747-8501, ci.catholic.ac.kr

예수회센터 영성강좌 (9월 개강)

영성과 철학상당-아픈 영혼을 '철학'으로 치유하기

(화) 19시~21시, 박병준 신부, 홍경자 박사

그리스도인의 대화법-비폭력 대화

(수) 10시~12시, 이윤정 강사

영성의 향기: 중세 영성의 거장들

첫째, 셋째(수) 10시~12시, 심종혁 신부

고통과 악, 그리고 영성 <신설>

(목) 14시~16시, 심현주 박사

신청: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전례분과를 위한 보이스 트레이닝

일시: 9/1, 11/3(그외 출강도 가능)

보이스 트레이닝(1:1 개인코칭 포함)

피정비: 1인당 5만 원(선착순 20명)

문의/접수: 032-933-1528(인천교구 50주년 기념 영성센터)

자비메르세다리아스수녀회 성소안내

대상: 하나님의 자비와 해방의 삶을 살고자 하는 여성

장소,일시: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어요

문의: 010-9492-0295(채세실리아 수녀)

홈페이지: www.mercedarias.kr

가톨릭신문사 직원모집

분야: 기자(취재,편집) /구분: 신입,경력(계약직)

접수: 9/4(수)까지 /문의:02-778-7679

홈페이지 www.catholictimes.org 참조

행복한책읽기 입문모집

주제: 자아성장과 신앙의 성숙
 언제: 8/22~12/12(목요일, 13:40~16시)
 회비: 10회, 12만 원(교재 별도)
 장소: 의정부 교구청 지하 1층 대강의실
 문의: 장그라시아 수녀 010-9016-7003

춘천교구 "작은 본당 도우미(재능기부)" 모집

취지: 춘천교구 내 작은 본당의 사목(어르신, 청소년 등)에 대한 도움
 분야: 음악, 미술, 청소년 상담, 웃음 치료, 글쓰기교실, 어르신체조 등
 (서세한 내용은 춘천교구 홈페이지(www.cccatholic.or.kr) 신청서 참조)
 문의: 춘천교구 사목국 메일(ccsamok@hanmail.net) 이나 전화(033-240-6049)

영성강의

주제: 생태계의 위기와 그리스도인의 역할
 강사: 백종연 바오로 신부
 (서울 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일시: 9/1(일) 13시~14:30
 장소: 마리아니스트센터(토당동)
 문의: 010-2738-6795 김흥춘 사도요한

안내 · 기타 ▶▶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2019년 2학기 수강생 모집
 대상: 성경공부를 원하는 모든 분
 문의: 031-360-7635, 010-7470-7966
 마감: 9/30(월) 인터넷 검색창 "사이버성경학교"

교하성당 설립 10주년 기념 음악회

1회: 8/17(토) 19시
 피아니스트 원재연 베드로 독주회
 2회: 8/24(토) 19시
 그라시아 성가대, 국악한마당, 서예퍼포먼스, 가수 정수라 공연 /장소: 교하성당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02-2281-9070

9/19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458만 원
 9/20 유럽 성모발현지 13일 395만 원
 9/24 발칸반도 12일 389만 원
 10/7 유럽 수도원 순례 12일 399만 원
 10/15 파티마, 스페인, 루르드 12일 380만 원

가톨릭평화방송여행사 성지순례

9/15 유럽4개국 성모님발현지 13일 398만 원
 9/22 터키-그리스 13일 392만 원
 9/28 이탈리아 중부지역 10일 369만 원
 10/16 독일 수도원 11일 398만 원
 문의: 02-2266-1591, www.cpbctour.co.kr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상담 및 입양 전까지 사랑으로 돌볼 위탁부모를 모집합니다.
 문의: 02-764-4741~3 www.holyfcac.or.kr

바오로성모의집 이용자 모집

시설명: 바오로성모의집
 대상: 치매가 없으시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여성분/샬트르성바오로수녀원 운영
 주소: 고양시 덕양구 중고개길 98번지
 문의: 02-381-7510, 010-5235-1130
 참고사항: 월요일은 상담을 받지 않습니다.

가톨릭여행사 (문의 : 02-319-2533)

9/16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395만 원
 9/17 동유럽 발칸 5개국 12일 385만 원
 9/23 터키 그리스 12일 395만 원
 9/30 성모님 발현지 4개국 12일 375만 원

제주 성지순례 3일

일시: 9/17~19, 10/15~17, 11/5~7
 장소: 제주성지6곳 (성지해설)
 문의: 064-805-9689

해외순례: 2020년 3/2 그리스터키 12일

라파엘여행사02-778-8565

9/9 추석 특선 이스라엘,요르단10일 299만 원
 9/11 추석특선 이태리일주9일 299만 원
 9/11 추석특선 홍콩마카오4일 139만 원
 9/9 추석특선 성모님발현10일 335만 원

한국 예수회 후원회 해외 성지순례

9/6 이스라엘 9일(추석연휴) 350만 원
 9/16 알프스주변 수도원 및 성모발현성지 5개국 13일
 10/8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 14일 390만 원
 10/22 사도 바오로의 발자취(터키·그리스) 12일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교회 내 성폭력 피해 신고 안내

전화접수
 031-850-1406, 850-1411

전자우편
 clergy@uca.or.kr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의
성 모 의 모 임	한국외방선교회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010-8715-2846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8/17(토) 14시	개화동 수도원(서울)	010-3800-1579
	스승예수제자수녀회	8/18(주일) 13:30	스승예수제자수녀회(미아리본원)	010-9816-0072



혼인성사(3) :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합니다.” (1요한 4,19)

왕태연 요셉 신부 | 신앙교육원 부원장

“보이지 않는 하느님 은총의 가시적 표현”이라는 성사의 정의에 따라 생각했을 때, 성사의 거행에서 그 가시적 표현들, 즉 특정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은 주로 그 성사의 집전자인 ‘사제’입니다. 성사에 참여한 이들은 사제가 바치는 기도문의 내용이나 사제가 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그 성사의 특성을 알게 되고, 그 성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총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혼인성사의 집전자는 사제가 아닌 “신랑과 신부”입니다. “라틴 전통에 따르면 신랑 신부가 그리스도의 은총의 집전자로서, 교회 앞에서 혼인 합의를 표명함으로써 서로 혼인성사를 줍니다. 동방 교회의 전통에서는 사제(주교 또는 신부)가 신랑 신부의 상호 합의에 대한 증인이 됩니다. 그러나 성사의 유효성을 위해서는 사제의 축복이 필요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623항)

이처럼, 혼인성사에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을 드러내는 것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하느님 앞에서 맹세하는 ‘혼인 합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교회와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언자들은 이스라엘과 맺으신 하느님의 계약을 독점적이고 충실한 부부 사랑의 표상이라고 보고 혼인의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을 깊이 이해하도록, 선택된 백성의

의식을 준비시켰습니다. 룯기와 토빋기는 혼인과 부부의 신의와 애정이라는 고상한 의식에 대해 감동적인 증언을 담고 있습니다. 성전은, 아가에서 발견되는 ‘죽음처럼 강한’ 사랑, ‘물살도 쓸어 갈 수 없는’(아가 8,6~7) 사랑이라는 표현을 하느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인간 사랑의 독특한 표현으로 언제나 여겨 왔습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611항)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으로 부부간의 사랑이 이어질 때, 그 사랑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영원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랑의 근원이시기에, 우리를 자유롭게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본래 결정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사랑은 ‘다른 새 결정을 내릴 때까지’라는 한정적인 것일 수는 없습니다. 부부간에 이루어지는 이 깊은 결합은 두 인격의 상호 증여로서, 자녀의 행복과 더불어 부부의 완전한 신의를 요구하며, 그들의 풀릴 수 없는 일치를 추구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646항)

그러므로 부부가 드러내는 “영원불멸한 사랑”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선택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고귀한 사명에 초대되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할 때, 비로소 그 완성에 이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